

朝醫(四象方) 荊防地黃湯의 임상응용

김승열*

형방지황탕은 숙지황, 대추껍질, 복령, 택사, 차전자, 형개, 방풍, 강활, 독활등 8가지 약물로 조성되었는바 소양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대표방제이다. 본방의 응용범위에 대하여 『사상신편』에서 말하기를 : '망음증, 몸이 차갑고 설사하며 부종초결 및 조리(浮腫初結 및 調理) 형계 방풍 강활 독활은 모두 다 보음약이며 형계 방풍은 흉각의 바람을 치고 강활 독활은 방광의 진음을 크게 보한다. 두통 복통이던 비만 설사이던 무릇 허한 자는 백첩을 쓰면 효과를 안보는 것이 없다.' 이런 작용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년간의 임상실천중에서 본방가미로 소양인의 의난병을 치료하는 레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소양인의 전광증(정신분열증)

환자 리 ** 녀 18세 88년 10월 6일 진찰하였다. 그 아버지 구술에 의하면 말씀이 많고 밤에 잠들지 못한지 반달남짓이 되었다. 매달 월경시작전부터 이 환자는 말이 많고 열토당토한 말을 던지거나 중복할 때가 많았다. 온밤 주무시지 않아 집식구 생각에 보통일이 아니라고도 인정되어 병원에 와서 검사시켰었다. 혈압은 120/80mmHg 의 식이 똑똑하나 합작하지 않으며 눈길이 좀 응시되

고 대답이 유창하고 론리성이 있었으며 심폐 간비에 이상이 없음. 신체 검사시 합작하여 가족사중 정신병사를 부정하였다. 이 환자는 소양인에 속하는 바 처음 소양인 불면증(신경관능증)으로 치료하였다. 약물로는 숙지황 20.0 대추껍질 10.0 복령 20.0 택사 20.0 차전자 10.0 형계 10.0 방풍 10.0 강활 10.0 독활 10.0 석고 50.0 치자 10.0 이상 다섯첩 한첩을 다려 두 번에 나누어 구복시켰다.

두번째 진찰 : 그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이상약을 구복한 후 명확한 호전을 가져 왔는다 밤에 잠들 수 있었으나 한 주일이 지난후 여전히 대변을 보지 못하더니 또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말씀이 어떤때 많고도 어떤때 적으며 번조 불안해하며 집에 있는 옷장도 다 마사버렸다. 진찰시 비록 합작할 수 있으나 손발이 제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고 표정이 단막하고 문답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맥은 침하여 세약하였다. 설질은 붉고 설태는 누렇다. 이 병은 소양인의 전광증(전광증) 서의의 정신분열증에 속하기에 형방지황탕에 천황련 10.0 치자 10.0 구기자 20.0 단피 10.0을 가하여 일곱첩을 지어 매일 한 첩씩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구복시켰다.

세번째 진찰 : 환자 부모의 구술에 의하면 약물

* 길림성연변사상의학회연구소

이 논문은 제2회 사상의학 국제학술대회 제출 논문임.

복용한 후 일체 증상이 소실되었으며 부친과 함께 벼가을 로동에 참가할 수 있었음. 그후 반달이 지난후 증세가 복합하여 또 다시 와서 진찰 하였음.

네번째 진찰 :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이상하였고 말이 맞지 않았으며 허튼 소리를 치고 때론 남북통일에 대한 말을 하다가도 또 때론 부모형제가 여하여하다고도 연설하는가 하면 또 진찰실에서 소립상의 동작도 표현하기까지 하였는바 어떻게 해도 공제할 수 없었다하여 즉시 안정 10mg을 근육에 주사하고 형방지황탕에 구기자 20.0 목단피 20.0 박하 10.0 석고 50.0 치자 10.0 천황연 10.0을 가하여 도합 일곱첩을 복용시켰었다.

다섯번째 진찰 : 환자 부모의 구술에 의하면 복용후 이튿날부터 허튼소리를 치지 않았으며 태양혈이 아프다고 하고 간혹 머저리 웃음을 하였는바 원처방에 따라 또 일곱첩을 복용시켰었다.

여섯 번째 진찰 : 그 부모께서 기쁜 심정으로 환자의 일체 행동이 이전과 같다고 교대하였는바 치료효과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또 일곱첩을 구복시켰다.

설명

이 환자를 치료하던중 처음 진찰시 천황련을 넣지 않았기에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었으며 두번째 진찰시부터 처방에 천황련 10g을 가한 다음 증상이 명확히 호전되었으며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 천황련으로 증상을 공제시켰음. 우리의 립상체득은 소양인의 두통과 기타 두부증상은 흔히 천황련을 넣으면 병세가 나아진다는 이 점을 여러분들께 참고로 드림. 이 환자를 1년 지난후 방문해 보았는데 병세가 지금까지 복합되지 않았다.

2. 열림증(급성신우신염)

환자 김 **, 남, 44세, 월경향기신촌 사람. 85년 2월 11일에 진찰, 자술에 의하면 춥었다 더웠다 열이 나고 허리도 아프고 3일째 소변이 적었다. 항위생원에서 항균소로 수일치료하였으나 현저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최근 3-4일 간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아래배가 은근히 몹시 아팠으며 음식이 싫고 배가 부르고 전신이 무력하며 건디기 어려워 병원에 와서 진찰하였다. 검사에 의하면: 의식은 똑똑하나 얼굴에 아픈 표정을 띄었으며 전신이 무력하고 혈압은 정상이고 공막이 누렇지 않고 입술은 마르고 목은 날선하고 심장폐장은 이상이 없으며 간장, 비장은 크지 않고 양측허리 구겨통이 현저하며 전 복부가 뚝뚝하며 압통이 고정적이 아니고 복부 여러곳에 압통이 있는바 과민성 모양이었고 반조통(反躁痛)이 없고 腸音(장명음) 항진이 11 없고 하지 부종이 없으며 설질은 붉고, 설태는 누렇고 말랐으며 맥은 침세약하다. 소변검사결과 : 뇨단백(++) 백혈구 6-8/현미경교배수이고 관형(-).

이 환자의 병사로 보아 신체검사와 치료경과로 보아 소변에 개변이 있으며 열림으로 확진하였는바 서의 진단에선 급성신우신염으로 불리운다.

치료 : 이 환자는 소양인으로서 형방지황탕을 가감하였는바 약물로는 숙지황 20.0 대추껍질 10.0 복령 20.0 택사 20.0 차전자 10.0 형계 10.0 방풍 10.0 강활 10.0 독활 10.0 박하 10.0 고삼 20.0 두첩을 매일 두 번 다려 아침 저녁으로 복용시켰음

두 번째 진찰 : 네 번째날 복진할 때 말하기를; 첫 첩을 복용한 후 그날 밤 소변이 물통 반통이나 되며 두 번째 약을 복용한후 소변량이 처음 날보다 많았다. 그러나 약두첩을 복용한 후 요통이 소실되고 아랫배 아프던 것도 소실되었으나 신체는 매우 무력하여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었고 탈수 모양이었다. 소변검사결과 뇨단백이 소실되고 기

타 다른 이상이 없으나 이 환자의 소변이 너무 많아 마땅히 기를 부축하여야 하지 사를 더하지 말아야 하므로(응부정, 불가재거사) 사상방 육미지황탕 세첩을 또 다려 복용시켰다.

세 번째 진찰 : 환자의 일반 정황은 커다란 개선을 가져왔는바 피로한 기색이 없었음 그러나 아직도 갈증이 나고 대변이 건조하여 또 육미지황탕 세첩을 복용시켜 후과를 공고히 하였다. 3개월후 환자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 그 약을 자신후일체가 정상으로 되고 지금 체육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감사를 표시하였음.

설명

사상방으로 립병을 치료하는 처방은 두가지 인바 하나는 형방지황탕 가미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12미지황탕이다 립상중에서 늘 가감하는데도 두가지 인바 하나는 금은화 천황련이고 다른 한가지는 고삼인 바 치료효과는 비슷한 바 고삼을 쓰면 값이 싸서 백성들게 편리하다. 그 외 동의수세보원에서 말하기를: 형계, 방풍, 강활, 독활 4가지 약은 모두 리노작용이 있다. 이 환자의 치료에서 증명한다 싶히 확실히 여사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 인정하건대 4가지 약은 다 보음약으로서 어느때 리노작용을 하고 어느때 보음작용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뇨계통의 감염에서 리노작용을 하고 허로중에서 보음작용을 하며 혹은 매개 중세에서 모두 작용을 일으키는지 앞으로 립상에서 더욱 관찰하고 증명할 것이다.

3 월경전 복통, 두통증

환자 김 ** 녀, 44세 시연길식품회사간부, 매달 월경이 오기전 10일부터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며 정상적 사업을 하지 못한지 이미 반년 남짓하였다. 매번 월경이 지난후 이튿날부터 전과 다름

없이 되었으며 또 월경이 오기전 10일전이면 두통, 안통이 나졌다. 즉, 시급 병원에 가서 검사하여도 안과와 두부계통의 아무런 모병도 찾지 못하였다. 월경이 달마다 이처럼 반복되고 식욕이 감소되고 맥이 없으며 정신부담이 매우 중하고 여러 병원에 가서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어 우리 병원 진찰부에 왔다. 병원에 올 때 바로 월경전 두통과 안통 시기였다. 이 환자도 소양인에 속하여 먼저 형방지황탕에 목단피 20.0 구기자 20.0 박하 10.0 네첩을 드렸음.

두 번째 진찰 : 5일후 복진한 결과 환자의 두통, 안통이 크게 감소되어 또 6첩을 드려 월경전까지 구복시키고 월경이 온 15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세 번째 진찰 : 두 번째 월경 10일전 진찰해 보니 아직도 두통 안통이 있어 또 10첩을 주었다.

네 번째 진찰 : 세 번째달 월경 10일전 또 10첩을 드리고 다음달에 관찰해 보라고 부탁하였다.

다섯 번째 진찰 : 네 번째달 두통 안통이 소실되었고 일년동안 아직 병세가 복발하지 않았다.

4. 빈발성 실성조박증(頻發性 室性 早搏)

최 ** 여 35세 연길시피복창 로동자

90년 11월 20일에 처음 진찰하였는데 총계로 올라가거나 급히 걸어도 숨이 찬 증세가 반년 남짓하였다. 반년전 북조선 친척방문을 갔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총계에 오를 때 숨이차도 상관하지 않았으나 귀국 후 정상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활동시 가중해지고 8시간 로동도 견디하기 힘들며 한참동안 휴식하여도 호전되지 않았다. 심전도 검사에 두성심률(竇性心率), 빈발성 실성조파(頻發性 室性早搏) 부정상심전도로 나타났고 맥은 침하고 약하며 결맥도 있고 설질은 매우 붉었다. 이 환자

도 소양인으로서 심계(心悸) 허로증에 속한다. 하여 형방지황탕에 구기자 20.0 목단피 20.0 감송 10.0 홍화 10.0 세첩을 주었다.

두 번째 진찰 : 3일후 복진해보니 약을 자신후에도 여전히 숨이 차고 수면이 적었다.하여 원방에 토사자 10.0을 넣어 세첩을 드렸다.

세 번째 진찰 : 일주일후 복진한 결과 숨차던 것이 현저히 낫아졌으며 결맥이 거의 없어지고 밤에 잠이 잘 왔는바 원방으로 또 세첩을 드렸다.

네 번째 진찰 : 아무데도 불편한 감이 없고 심전도를 해보니 정상이었다. 치료효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또 세 첩을 주고 반년후 방문해 보니 병이 복발하지 않았다.

편쪽의 제한으로 4가지 병증만 레를 들었는바 아직도 많은 병을 레들 수 있습니다. 실천이 보다 실히 동의의 우월성은 갈수록 더 현명해졌으며 림상응용의 관건은 상을 가리는 것이다. 작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기의 대소와 해부학의 관계로 객관상을 가리는 표준을 확정하여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고 진일보 연구하려 합니다. 본인의 경험이 적고 문장이 통순하지 못하니 틀린 곳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십시오

참고문헌 : 東醫壽世保元, 四象新編